



대한양계협회 소식

제9회 산란계 능력검정 입란

대한양계협회가 닭의 자질개량과 양제인에 대한 병아리구입의 지침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이 이번으로 제9회째 실시되는데 지난 2월 15일 출품접수를 마감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종란을 수집, 3월 9일 입란을 완료해서 현재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에 소재한 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 검정소에서 육추중에 있다. 이번 출품한 계군은 국산계 4군, 수입

계 6군으로 총10군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산란계군은 아래와 같다.

서울부화장	윤경중	바브콕 B 300
고창양계센터	신홍중	바브콕 B 300
한국카길(주)	박승만	세이버스타크로스 288
천호부화장	이계조	하이백스 화이트
향촌목장	김필성	하이라인 W 36
신기농장	이상윤	하바드골든코멧
한협가금농장	박도현	한협 122호A, 122호B, 333호 353호(4군)

類似團體 통합방침

畜犬단체, 양계·養鴨, 振興會·경영연구소등

농수산부는 지난 3월 8일 축산국장실에서 관계 축산단체 대표자와 농수산부 실무자와 협의한결과에 따라 유사목적의 가진 축산 관계법인 들의 사업의 중복을 피하는 부조리 제거 작업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대한 양계협회와 한국양압협회, 축산진흥회

와 축산경영연구소, 한국축견협회, 한국도사 견협회, 한국세파트견 등록협회, 한국진도견 보호협회 등 축산단체의 통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 각 단체는 농수산부 방침대로 현재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성료

홍일우등 6명 합격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는 해외에 파견할 감별사의 선발시험 및 감별사 자격시험을 지난 3월 21일(금) 한미감별학원 실습실에서 실시하였다. 해외파견 응시자는 11명이었는데 6명이 해파감별사가 자격을 획득했다. 합격자는 홍일우, 허만재, 김희준, 최경삼, 오순일, 윤공덕씨 이다. 또한 감중감별사 6명이 자격을 획득했다.

동두천지구 양계협회

활동개시

동두천지구 양계업자들은 지역내의 단결을 도모하고 공동구입 공동판매, 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8일 동두천지구 양계협회를 결성,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두천지구 양계협회는 대한양계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의 역할을 하면서 동두천지역 일대 양계업자들의 협동단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과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최진삼

이사 : 이호성, 황현익, 김인서

서상선, 최영식

감사 : 김철, 박태도

고문 : 박재용

협회사무실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 2리 822번지 농협동두천읍 단위조합내

躉化分科위원회 개최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 부화분과위원회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초생추 생산조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초생추 판매가격의 적정선유지와, 종계등록과 계통이 불분명한 초생추의 생산방지, 최근의 뉴캐슬 만연우려에 대한 예방대책등 광범위한토의를 가졌다

감별분과 위원회 개최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3월21일 감별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별사의 해외파견 문제와 금년도 감별사 경진대회에 관한 토의가 있었는데 감별사의 해외파견은 양계협회의 시험성적 서열에 따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감별사 자격시험은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달걀 페스티벌

미국 메인주에서 7월 27일 개최 예정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는 7월 27일 연례행사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계란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전세계 각국에서 가장 큰 계란을 출품받아 개최하는데, 대회 회장 십스슨씨는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팬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굽년에는 가장 큰 계란을 찾아내어 가장 큰 프라이팬에 요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수한 계란은 금박을 입혀 영구보존할 것이며 우승자에게는 적당한 상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회 심사는 국제표준심사국에서 맡겨질 것이며 세계각국의 많은 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농수산부와 미농무성 산하기관에 협조를 의뢰한바 있는데 가장 큰 계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출품하도록 바라고 있다. 출품한 계란은 1974년 7월 27일까지 메인주 피츠필드에 도착하여야 하며,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계란이어야 한다.

양계협회

宋正澤전무 訪日

대한양계협회 송정택전무는 지난 4월 2일 약 1주일 예정으로 일본의 양계현황을 시찰하고 일본양계협회등 관련단체와 앞으로의 협조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KAL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飼料難 더욱 심각

강피류 공급부족 해소될 전망없어

수요감소에 따른 제분회사들의 조업단축으로 사료용 밀기울 공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農協은 각 제분회사로부터 생산밀기울의 90%를 인수 양축농가에 배정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밀가루 생산 부진으로 밀기울의 인수량이 당초계획의 50%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양축농가에 대한 밀기울 공급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 이처럼 밀기울 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26일 밀가루가격이 60% 인상된 후 밀가루의 수요량이 크게 줄어들어 제분회사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밀기울 거래가격은 농협배정 가격(36kg부대당 793원)보다 2배이상되는 1,800~2,000원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사료공장의 관계자에 의하면 주로 양돈, 낙농사료는 농축사료라는 이름으로 옥수수과 박류만 배합하여 kg당 75~98원에 공급하고 있어 생산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畜産業 外國人 투자 유치 대상

국내산업과 결합될때 제한

경제각의는 7월 새로운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투자사업의 유치대상업종 및 인가기준을 설정한 외국인 투자 유치업종 예시안을 의결했다.

畜産業, 어업, 모두 17개 업종에 걸친 이 외국인 투자 유치업종 예시제도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인가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제도에 따라 투자비용, 규모 및 수출이행 조건을 명시 하고 있다.

기획원 당국자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그 예시업종을 재편했을뿐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이 국내산업이나 수출에서 결합될 때는 그때그때

주무부 의견을 들어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에 대한 투자업종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업종

- ① 육우 및 한우번식 및 사육
- ② 양돈
- ③ 빙크사육 및 모피가공
- ④ 양계

▲투자기준 : 토지는 임대만 허용

축산학회 축산기술

용어 제정 심의

축산학회는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시행되는 축산기술용어제정을 위하여 축산부분을 10개 분과로 분류하여 약 4,000단어의 용어를 새로 제정, 개정 심의작업에 착수하였다. 축산부분중 양계분과 위원회는 오봉국, 이재근, 오세정교수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1차 심의는 4월 말까지 끝맺기로 하였다.

農業開發資金 올해 33억원 지원



— 축산 양잠등 7개 부문 —

농수산부는 올해 축산, 잠업, 사과등 7개 부문에 농업 개발자금 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9일농수산부에 의하면 IDA 차관 자금을 재원으로 한 농업개발 사업으로서 올해에 양계, 양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잠업등 7개 부문에 33억7천만원의 중장기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부는

이 자금을 농가당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케 되며 융자기간은 최장 12년까지로 되어있다.

한편 농협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용역조달, 지원훈련시설 설치, 경영진단등 부대사업도 실시케 되는데 지역별 자금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100만원)

경기 386	강원 195	충북 271
충남 503	전북 366	전남 333
경북 837	경남 326	부대사업 153

한국유리브리드협회의

춘천·순흥부화장 새회원으로 유리브리드총수 헨드릭스방한

춘천부화장(대표: 정동원)과 순흥부화장(대표: 김정유)이 새로 한국 유리브리드협회의의 새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유리브리드 협의회 (회장:이계조)는 오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화란 유리브리드 대표 헨드릭스와 육종전문가 I.R. 랑게 씨를 맞아 도규호텔에서 유리브리드 협의회 회원과 축산관계잡지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양계의 추이, 화란에서의 양계산물소비 증대운동과 육종과정의 변천, 산란계, 부로일러의 육종표준에 대하여 간담회 가졌다.

日, 新聞紙를 史料로

일본에서는 젓소의 일반사료에 현 신문지를 첨가하여 먹도록 길들여 지고있다. 이곳 부근에비나에 있는 동 목장 관계자들은 홀스타인 젓소 4마리가 매일 정밀에 배합된 현 신문지를 각각 2kg씩 (사료의 6분1)먹고 우유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한다. 현 신문지 1kg의 가격은 보통 15圓 (5센트)에 불과하므로 건조보다 30圓(10센트)이 열가이지만 정밀이 첨가되면 신문지 사료는 55圓(18센트)이 된다. 현 신문지는 60%의 셀룰로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실험결과는 아직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것이지만 우유맛에 변함없었다고 했으며 인체잉크는 연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무시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 신문지가 정규적 동물사료로 사용되기에 앞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74년 축산물 수급 추정

—시민 1인당 연간 12.12kg 소비—

서울시가 올해의 축산물 수급을 추정한 것을 보면 쇠고기가 1인당 연 3.43kg, 돼지고기가 연 3.82kg, 닭고기가 4.41kg, 기타 0.46kg으로 총 육류 소비량을 1인당 12.12kg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것은 쇠고기 28%, 돼지고기 32%, 닭고기 36%, 기타육이 4%로 닭고기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란과 우유 소비량 추정을 보면 계란이 1인당 연 239개, 우유가 11.3kg으로 계란은 전국소비량의 44.3%, 우유는 52.6%를 각각 서울에서 소비하고 있다.

쇠고기는 서울에서 전국의 44.2%, 돼지고기는 23%, 닭고기는 4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의 계절소비를 보면 쇠고기는 9월과 12월에, 돼지고기는 11월, 12월에 닭고기는

6, 7월에, 계란은 4.5월에 우유는 5.6월에 각각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사료 부로일러공장 준공식

대한사료(대표: 김시호)는 그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있던 부로일러 공장의 준공식을 4월중으로 열고 본격적으로 위생적인 육계 생산품을 공급하리라 한다. 제품은 일반용통닭, 가정용통닭, 구이용통닭, 정육부분육, 주문품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사는 새로이 개량된 메칼브 PS를 이미 도입하여 병아리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 메칼브는 종래의 131, 151, 161, 571 등의 결점을 보완 한 닭인데 백색계로는 231호, 갈색계로는 메칼브 엠바링크를 매주 금요일 분양한다.

世界 단백질 사료 공급량 74년중 크게 증가할 듯



미국의 콩 수확이 73년에 풍작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의 단백질 사료공급이 74년중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도 전년보다 하락할 것 같다. 73년중 사료 가격의 앙등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육류가격의 인상을 초래했다. 1974년의 단백질 사료생산은 약 6,590만톤으로 예상되어 73년보다 98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4년도의 단백질 사료 증가생산량은 73도 증가량의 6배가 되는 것이다.

74년도 단백질 사료 생산증가 예상량 980만톤중 3/4은 73년도 미국의 콩수확 및 브라질의 74년도 생산량증가에 힘 입은 것이다.

73년도 세계 주요단백질사료 생산국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미국 : 73년 콩생산 4,270만톤 ▲브라질 : 74년도 콩 생산 예상량은 600만톤 ▲페루 : 74년도

엔조비(멸치종류)생산량은 120만톤으로 회복예상 ▲인도 : 73년도 망콩 생산량이 600톤을 기록 ▲소련 : 73년중 해바라기 생산량이 600만톤 미국의 73년중 콩 생산 증가로 인한 74년도 단백질사료 공급능력은 3,470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590만톤이 증가했다. 이 결과 74년도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 사료의 비율은 전세계 단백질사료의 53%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73년의 51%, 72년의 48%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브라질의 콩생산은 경작지가 대폭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의 콩 생산은 옥수수에 비하여 수입성이 높아 옥수수보다는 콩을 경작하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세계의 고단백질 사료가격은 인플레이 비율 이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1970년대에는 지난 73년의 기록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인조단백 식품의 대규모 생산은 각종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인조단백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기업은 인조단백식품제조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 원유가격의 대폭상승은 사료용 인조단백식품의 대규모 생산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료가격의 앙등은 소비자들에게 축산물 가격상승의 형태로 전가되게 마련이다.

飼料用 멸치 漁獲再開 불구

大豆값 계속 강세 기세

축산사료로 쓰이는 페루의 엔조비(멸치의일종) 어획재개가 앞으로 대맥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베른즈 피넬, 위클리지가 전했다. 다소강세(바퀴서)로부터 흑세(드릭셀렘사) 및 다소강세(메딜린치사) 등 견해가 구구하다. 대두는 그 자체로는 그리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공업용과 신설 증자용으로 조금 쓰일뿐이다. 거의 모든 대두소비는 두가지 부산물 즉 대두박 대두류(들다 선물시장에서 거래됨)로 쓰인다.

따라서 대두소요는 가축사료시장(대두박)등과 식물류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대두에 관한 종합적인 추가보고를 발행했다. 이에 의하여 대맥 자체는 적어도 단기 간은 다소 강세라는 것이다. 이 회사가 수집한 대두에 관한 기초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73~74곡물연도의 생산량은 1조 5천 6백 70억부셀(미농무성추산)에 달할 것이다. 년도초 재고 수지가 6천만부셀이므로 공급량은 도합 1조 6천 2백 70억부셀에 달해 지난시즌보다 약 21% 증가할 것이다.

곡물량 격감

FAO 올해도 흉작이면

대기근 예상

세계곡물비축량은 극도로 격감 급년 한해만더 흉년이들면 세계적기근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아드케 H. 뵘르마박사가 11일 경고했다. 뵘르마박사는 이날 로마에서 열린 농업관련산업협력계획 10차총회에서 우리는 2년동안 계속해서 세계적 식량부족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밀의 비축량은 이미 지난 여름 2천 9백만톤의 위험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오는 6月末이면 2천 1백만톤으로 격감될지도 모른다.

동립산업 배합사료 공장 건설



대단위 제분회사인 동립산업(영등포구 구로동636 전화62-0031~39)은 정부의 유신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국내사료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도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료를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새로 일산 100톤 규모 의 사료공장을 건설 양계사료와

양돈, 낙농사료를 50%씩 공급하리라 한다. 본격적인 판매는 오는 6월 1일 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증진 타사료공장의 대리점 판매제도를 지양하고 대규모 농장은 농장과 공장직거래, 소규모농장은 지역별로 묶어서 직거래제도를 채택하여 중간마진을 가능한한 배제할 방침이라한다.

이미 전농수산부 중소기업제작이광희씨를 사료부장으로, 김권수씨와 강유성씨를 생산담당으로 특채 하였다.

한국林兼(株) 비육우 합작투자

日本 林兼과水原牧場 50 : 50

한국의 수원목장과 日本 林兼(株)는 50 : 50 비율로 비육우에 합작투자하여 금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농림공무원 교육원 교수 김형철 과장이 韓國 林兼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동서가축약품

지난 73년말 신화특수사료를 인수하여 경인특수사료라고 상호를 개칭하여 종아지분유 VITATA와 새끼돼지분유를 생산하고 있는 동서가축약품 사장 구경배씨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 주문이 쇄도하여 사세번영의 일로에 있는 데다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한다.

■인사이동·전화번호 변경■

- 사료협회
3월 20일부터 전화 24-3106~10번으로 변경
- 김권수 : 한국사료공사에서 동립산업으로
- 강유성 : 삼화물산에서 동립산업으로
- 권 관 : 한국카야길에서 연암축산기술학교 사료과장으로
- 정병기 : 한국 카야길농장에서 사료공장으로
- 동서축산 : 새전화 23-0714가설
- 정○○ : 한국축산농장 중돈담당으로
- 천호농제호회 : 전화번호 변경 55-2081(서울부화장 사무실)

사료협회 텔레스로 세계곡물, 사료정보 수신

한국 사료협회는 로이타 합동통신과 계약을 체결하고 3월말부터 전세계의 사료곡물, 축산물시세와 이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신하여 업무에 활용하리라한다.

대한신약 신제품발매

대한신약(대표 : 김흥기)은 미국 업존사 제품 배가지를 새로도입 발매하고 있으며, 화란 인터베트제품인 마레백신을 새로이 도입발매 중이다.

▲바이오솔보루스—미국 업존 제품. 소의 자궁, 질등 생식기 질환치료제, 50보루스 한박스에 10,000원

▲바이오솔M보루스—업존제품 송아지하리 치료제 50보루스 한박스에 10,000원.

▲스웨살포몰라 17900—업존제품 착유시기의 젖소 유방염 치료제, 10m/ 12판 한박스에 9,000원

▲바이오테프—업존제품. 건유기(乾乳期) 젖소의 유방염치료제

10m/ 12판 한박스에 6,000원

▲마레백신노빌리스—화란 인터베트사 제품인 동결 건조 마레백신

자세한 문의는 서울 중구 북창동 40 전화 22-3915, 3965로.

명지목장 젖소 1,000두 도입예정

800두는 현금으로 농가에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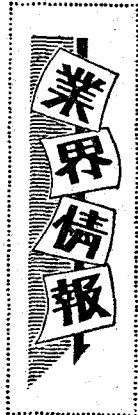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 유상근)산하 명지목장은 오는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이인표씨와 김홍주씨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서부지역 원산인 20~24개월령의 홀스타인 순종 1,000두를 도입하여 200두는 대판령, 이천등지의 자체농장에서 사육하게 되고 800두는 현금 48만원에 농가에 분양하리라라고 한다. 이들 도입될 젖소는 임신 5~7개월로 사산유능력은 년평균 15,000lb 이상이라고 한다.

명지목장은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에 300정보,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에 120정보의 목장을 가지고 있다. <전화 28-4310>

急増하는 日 쇠고기 輸入

'74년 17만톤 넘을듯

호주서 90% 공급……값도 美보다 비싸



일본의 쇠고기 수입고는 지난해의 12만 6천톤에서 금년에는 17만 5천톤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미농무성이 발표한 「해외농업」지

가 최근 전망했다. 일본은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의 3개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국가별수입 예상량은 호주로부터 12만 6천톤, 뉴질랜드로부터 1만톤 미국으로부터 4만톤이 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이잡지는 세계 제일의 생선애호가인 일본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쇠고기 소매가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쇠고기 취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인들의 쇠고기 수요증대에 따라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다른 한쪽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위치하며 나머지 한쪽에 미국이 위치하는 「쇠고기 삼각무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일본 쇠고기 수입고의 9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대미 제조등급 쇠고기공급량은 대일수출량의 3배에 달하며 미국은 호주로부터 쇠고기 원육을 공급받는 한편 고급쇠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미농무성의 로저 로원 가축식육국장은 일본인들의 최근 쇠고기 성향이 살코기가 많은 제조

등급 냉동육대신에 신선한 고급식탁용 쇠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로원국장은 또한 일본인들이 미국산최고급 쇠고기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고가의 神戸 쇠고기 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미국의 대일 쇠고기 수출이 급증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72년에만도 불과 597만톤의 쇠고기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1만 1천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해외농업」지는 미국소비자들이 미국내 쇠고기 가격이 높

다고 불평하고 있으나 일본의 그것은 훨씬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작년 11월 미국 소매상점에서는 미국산 로인비프(냉동편육)가 파운드당 5.68달러에 팔렸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미국산 고급쇠고기 수요증대로 미국은 대호주 쇠고기 원육수입비의 상당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쇠고기 생산업자와축산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증산의욕을 고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5만톤 혹은 10만톤의 대일 고급쇠고기 수출은 미국의 총생산량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日本 '74년 牛肉 및 豚肉輸入

전년보다 120% 85% 각각 증가

일본의 1973년도 우육총수입량은 12만 7천톤으로 전년보다 120%가 증가하였고 돈육은 1972년의 6만 7천 9백톤보다 85%증가한 12만 5천톤이었다.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 10만 7,200톤, 미국 9,527톤, 뉴질랜드 9,464톤 이었고 한국은 24.5톤을 공급 하였다.

한편 돼지고기의 수입비율을 보면 미국 33%, 자유중국 27%, 캐나다 16%로 이세나라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고 한국으로부터는 총량의 1.5%인 1,855톤을 수입하였으며 중공은 99톤의 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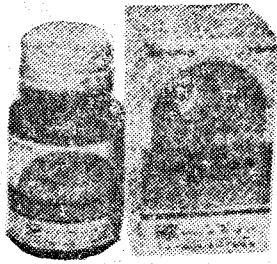
주요국별 돈육수입상황은 아래와 같다.

국명	수량(톤)
미국	41,096
노르웨이	2325
자유중국	33,758
한국	1,855
캐나다	20,202
호주	13,080
쉬트	10,552
계	125,739

英國, 肉類 소비촉진

위해 226만달러 모금계획

영국 전국농민연맹의 육류생산자들은 국내 우육, 양육 및 돈육 소비촉진을 기하기위하여 농민들로부터 226만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 한다. 영국의 전 육류무역업자및 식육가축위원회 대표들이 곧 회합을 열고 육류소비촉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예정이다.



**美國飼料穀物協會
會長團訪韓예정**

미국사료곡물협회의 최고 의결 및 경영층 일행이 한국의 사료 축산업계를 돌아보기 위하여 3월 31일~4월 3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에 방문하게 될 인사는 이사장 프레드 루드윅(아이오아 옥수수 생산자 협회장), 공동 이사장 엘버트 하프(미국 옥수수 생산자 연합회 전무이사), 회장 다윈스톨트, 아시아지부장 프랭크 핑크톤 박사등이다.

**미사료곡물협회 발간
「뉴스레터」**

3월부터 반월간으로

한국축산발전을 주도하는 정부 및 각부문 최고경영층에게 해외 사료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미사료곡물협회의 활동상황을 전하고자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가 이번 3월부터 반월간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계속 관계해의 정보를 간략, 신속하게 전달하여 한국축산발전계획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녹십자 신제품 발매

녹십자수의 약품(주)(대표: 마응호)은 신제품으로 양제, 양돈, 낙농용 수용성 종합비타민제 **비타룡**과 양돈용 사료첨가제(비타민·광물질제) **로코빗-SW**를 개발하여 발매하고 있다.

연락처: 서울중구 주자동41의3
27-7186~8

高麗人蔘鷄精 월남에 수출

—인삼과 닭고기의 영양가가 듬뿍—

유한양행(대표: 조권순)은 월남에 고려인삼계정 2,000타를 처녀 수출했다. 이 인삼계정은 유한양행이 동남아사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고려인삼과 닭고기를 섞어 새로 개발한 것으로 월남에 우리나라 인삼제품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양행은 올해 한햇동안 20만달라어치의 高麗人蔘鷄精을 월남에 수출할 계획인데 이번 처녀수출액은 8,683불이다. <좌상단 사진>



돼지번식 전문가 초청계획

—미사료곡물협회서—

양돈경영 자문계획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는 美國 듀록(Duroc) 및 햄프셔(Hampshire) 참피온 생산 종돈장을 경영하는 돼지번식 전문가 Benno Luensmann을 초청, 4월부터 6월말까지 한국의 교잡종생산 체계문제를 중심으로한 양돈경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계획을 세우고 있다.

Luensmann씨는 Texas A&M 대학에서 돼지 번식학을 강의했고, Extension swine Specialist로 양돈실무를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종돈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 및 민간번식사업 계획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이번에 초청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동안 5월말경에는 약 1주일간 대만을 방문하도록 하여 6월중에는 몇개 지역에서 세미나도 마련하게 된다. 이번식 전문가의 자문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있는 양돈가는 미국 사료곡물협회로 연락하면 가능한 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천호부화장 부화장 신축

천호 부화장(대표: 이계조)은 서울성동구 방이동과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에 135평의 새로운 부화장을 신설하였다. 새 부화장은 종계장과 부화장의 격리원칙에 입각 완전 독립시켰으며 부화능력은 마스터혼 32,000란(입란) 5조 한번에 160,000수를 입란할 수 있다고 한다. 부화장의 특징은 산란계와 부로일려 부화실을 구분토록 한 것.

**한국사료 첨가제
신제품 발매**

한국사료첨가제(대표: 최죽송)은 과거 북부사료에서 취급하던 武田製藥제품인 소독제 "에그크린"을 발매하고 있다. 또한 양돈용 사료첨가제인 컷먹이패치 실사에방치로제 CSP 250을 발매하고 있다. CSP 250은 교미후 3주간 투여하면 모돈의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